

동신대 '교육중심대학' 선언

개교 20주년 맞아 '2020년 국내 톱 10' 비전 수립

동신대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동신대 정기인 총장은 12일 광주 신양과 크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는 2010년 호남 최고 교육 중심대학, 2020년 국내 '톱(TOP) 10' 교육 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학 장기발전계획인 '비전 202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기능 중 어느 쪽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연구 중심대학과 교육 중심대학으로 나뉘는데 동신대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교육 중심 대학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발전계획대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리더육성, 인성함양, 해외 체험, 산학연계, 공학인증 프로그램 등 학생 누구나 좋아하는 드림(Dream)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신대는 오는 23일 개교 20주년 기념해 '스무살의 자신감, 동신대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2간지 석조각 공원 제막식, 학술심포지엄, 뮤지컬 공연, 길거리 농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1987년 동신공과대학으로 출발한 동신대는 그동안 학사 1만6천331명, 석사 1천40명, 박사 209명을 배출했으며 교육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인 누리사업 대형·중형 중심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호남의 사학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 총장은 특히 "문화관광과 보건복지, 생물산업, 에너지 등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리더육성, 인성함양, 해외 체험, 산학연계, 공학인증 프로그램 등 학생 누구나 좋아하는 드림(Dream)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신대는 오는 23일 개교 20주년 기념해 '스무살의 자신감, 동신대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2간지 석조각 공원 제막식, 학술심포지엄, 뮤지컬 공연, 길거리 농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1987년 동신공과대학으로 출발한 동신대는 그동안 학사 1만6천331명, 석사 1천40명, 박사 209명을 배출했으며 교육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인 누리사업 대형·중형 중심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호남의 사학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태준기자 hwangtae@kwangju.co.kr

어떤 경진대회 나가지?

'과학의 달' 맞아 행사 풍성

광주시교육청이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 우리의 희망! 과학기술, 우리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한다.

동부·서부교육청은 학교 발명품대회를 거쳐 선발된 발명 꿈나무들이 지혜를 겨루는 제21회 학생 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오는 19일 운암초와 동명중에서 개최한다. 또 4월 중 학교 단위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를 실시한 뒤 5월 22일 지역 대회, 6월 시 대회를 연다.

과학교육원도 천체관측활동·과학교육강좌·어머니 과학교실·과학현장탐사·과학전시장 개방 등 풍성한 과학행사를 마련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를 찾아가 과학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과학활동봉사대'도 농촌학교 학생들을 찾아가 신나는 과학놀이를 전개할 계획이다.

국학 칼럼

산타페市가 단학수련을 채택한 이유

뉴멕시코의 주도(州都)인 산타페시는 관광유망지이자, 세계적인 아트갤러리가 즐비한 곳이다.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미술작품의 절반 이상이 거쳐가는 이 곳에 한국의 정신문화인 단학이 자리를 잡은 지 8년이 되었다. 이곳 시각으로 4월 10일에는 한국의 단학과 단무도가 그간 산타페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기쁜 일이 있었다.

뉴멕시코주는 한국과의 우호증진과 친선 교교의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필자를 명예 친선대사로 임명했다. 산타페시는 4월 10일을 '이승헌 박사의 날'로 제정했다. 이것은 한국의 정신문화가 세계인들에게 '홍익'을 했기에 그들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먼저 우리의 국조의 정신과 철학에 감사드린다.

필자는 우리 국학에는 세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첫째, 국학의 뿌리는 천부경에서 나왔으며, 천지인 사상과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학은 실사구시의 학문이어야 하며,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위한 방법과 기술로 대중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학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모든 인간의 존재가치와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기여하는 '지구인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 국학은 진정한 국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국학이 대중화되고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과 평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강법, 명상법을 비롯한 수련법과 뇌교육법을 개발하고 교육해 왔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그러한 프로그램은

공익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왔다. 이번에 산타페시도 그러한 경우이다.

지난 해에는 뉴멕시코주 아메리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수련법과 무예인 단학과 단무도를 지도하기 시작했다. 아메리카 인디언 보호구역은 그 동안 청소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목 받아 온 곳이었는데, 단학과 단무도를 지도한지 수개월이 지나자,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정학이나 퇴학 등의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

산타페시는 이러한 결과에 고무되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단학수련과 단무도를 각급 학교는 물론, 커뮤니티 칼리지의 정규 커리큘럼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타페시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의 심신수련법과 뇌교육법이 베이비 붐 세대는 퇴하는 2030년까지 노인층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의료비용을 줄이고, 대체의학의 보급을 통해 질병발생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필자는 산타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기념강연에 모인 시민 200명에게 홍익의 철학이 담긴 '장생보법(Youthful Walking)'을 강연했다. 평균수명이 77세인데 반해 건강수명은 70세로, 7년을 질병에 시달리며 노년을 보내는 미국인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장생의 철학과 장생보법을 알려준 것이다. 감의를 듣고, 장생보법을 체험한 산타페 시민들은 1만년 전통을 가진 한국의 고대철학이 담긴 장생보법에 대해서 감탄을 보내왔다.

필자는 '뇌, 호흡, 걸음'과 같이 일상적이고 쉬운 체험을 통해, 국학과 홍익정신 그리고 지구사랑을 이야기 해 왔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도움이 되어야 뇌가 그것을 기억하는 법이다. 이제 산타페 시민들은 걸을 때마다, 한국의 홍익정신을 생각할 것이다. (국학연구소장 겸 한국문화연구원장, 국학원 설립자)



이승헌

다양한 독서賞...책임기 생활화 'OK'

목포 대성초등 독서지도 효과

목포 대성초등학교의 '다양한 시상제를 통한 독서지도'가 학생들의 독서생활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목포 대성초등은 지난해부터 전교생 770여명이 목포공공도서관을 1년에 한차례 방문해 도서관 이용과 독서 방법 등이 담긴 공공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4~6학년 고학년들은 담임 교사, 학부모 독서도우미(36명)와 함께 1년에 한차례 일반 서점을 돌려 읽고 싶은 책 1~2권을 학교 예산

으로 구입해주고 있다. 특히 대성초등은 '독서상 3단계' 수여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은 학생에게 '독서확인증' 1장을 수여하고, 독서확인증 10장을 받은 학생은 '대성귀염동이상'을 수상 할수 있다. 대성귀염동이상 10장을 받은 학생에게 메달을 수여한다.

1년에 가장 많은 메달을 받은 학생에게 트로피를 주는데, 지난해 메달 수상 학생이 436명에 달했고, 트로피 수상 학생은 3명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목포 대성초등학교가 '다양한 시상제를 통한 독서지도'로 책임기 습관을 조성, 교육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

광주공고 폐기자재 활용 '기자재 박물관' 개관

광주공고(교장 주규봉)가 폐기된 실습용 기자재를 활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 광정보기술과 실습 4동에 '기자재 박물관'을 개관했다.

박물관에는 선반 등 41종 57점의 기자재가 전시돼 있어,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산업발전에 따른 생산 설비의 변천 및 발전 전망을 파악하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주규봉 교장은 "박물관에 전시된 실습기자재는 광주공고의 오랜 역사와 전통은 물론 산업발전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면서 "선배 교원과 학생들이 쏟은 땀과 정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노후



박광태 광주시장과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등이 기자재 박물관 개관식에 참석, 전시 기자재를 둘러보고 있다.

기자재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능인들이 가야 할 바를 제시해 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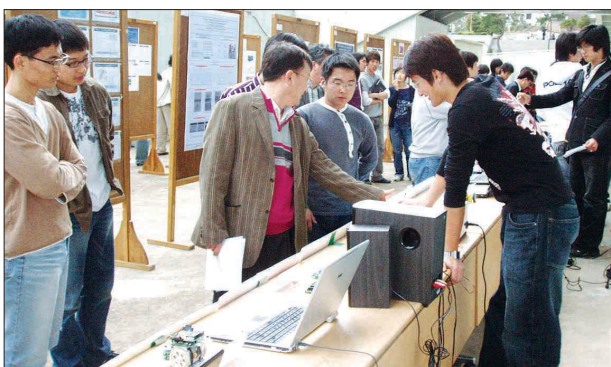
/황태준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대 누리사업단 '광·전자 학술대회' 성황

전남대 누리(NURI,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광·전자 부품산업 인력양성사업단이 최근 전남대 공대 6호관 지하광장에서 '제3회 광·전자학술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의 전공분야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누리 중심대학인 전남대(물리학과·전기공학과·신소재공학부)와 협력대학인 호남대(전자공학부)와 광주대(광통신공학전공) 학생 300여명이 참가했다.

연구논문 및 아이디어 발표 부문과 전공 관련 제작작품 출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



제3회 광·전자학술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출품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번 대회에서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3학년이 제 1등인 이아름군과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전공동아리 'HYPO'가 각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태진아 오늘출연

부킹천국 100%

정통 성인나이트만을 고집하는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